

□ 제주지역 공공시설 및 공영 관광지 개방 연기

제주지역 공공시설·공영 관광지 개방 2주 더 미뤄진다

시범 운영 당초 6월 4일에서 → 6월 18일로

방역 최우선 관점… ‘사전예약제·정원 제한’ 등 최소 범위의 부분 개방도 신중

- 원희룡 지사 “섬 지역 특성 고려해 전국보다 2주일 더 상황 지켜봐야” -
- 개방 확대는 분야별 세부 계획 마련 후 재논의… 빨라야 7월 6일 전망 -

□ 제주지역 공공시설·공영 관광지의 시범 운영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된다.

-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6월 4일부터 사전예약제, 정원 제한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 준비를 전제해 최소 범위 내에서 부분 개방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.
- 하지만 지난 주말 제주도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발생 한데 이어 제주 여행을 한 단체여행객이 군포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잇달아 받음에 따라, 제주도도 방역 최우선 관점에서 긴장 태세를 이어가겠다는 조치이다.

□ 제주도는 앞서 ‘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’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공이 운영하는 미술관, 도서관, 실내 공영관광지 등에 대해 3단계 단계적 개방 방침을 세웠으나, 앞으로 최대잠복기 14일을 고려해 2주간 더 휴관 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.

□ 원희룡 지사는 “제주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기존보다 위험도가 커지면 전 단계로 복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, 제주는 전국보다 2주일 정도 더 늦게 생활 속 방역을 추진할 계획” 이라고 설명했다.

□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시범 운영

은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오는 6월 22일로 잠정 예상 중인 개방 확대도 7월 6일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- 앞으로 도내 공공시설들은 밀집도와 실내외, 밀폐 여부 등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, 시범 운영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사전 예약제·정원 제한 등을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규모로 입장이 이뤄진다.
- 각종 행사를 비롯한 회의도 가급적 영상 및 서면·전화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규모 행사만 개최하는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한편,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지된다.
-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시범 개방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, 생활방역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정상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.

□ 한편,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공유하고, 공공시설 단계별 개방 시기 등을 논의했다.

-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발적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 개방 시기 결정은 보다 철저한 준비 절차 와 상세 세부계획 마련 후 개방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.
- 또한 지난 31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진자와 관련된 동선에 대한 무료 검사 지원, 공공시설 개방 보류 등을 논의한 바 있다.

※ 관련 문의 :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) 710-3630

□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및 행사 개최 요령

I 목적 및 기본방향

1. 목 적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, 국내에서 **대규모 행사, 축제, 시험 등의 집단행사**(군중 모임* 포함)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마련

* 세계보건기구(WHO)는 군중 모임을 ‘주최하는 지역 사회,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 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’으로 정의

- 또한, 집단행사 시 **주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보건소)**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을 제시

- 다만 본 지침은 **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** 제시한 것으로서, **집단행사의 성격, 대상자, 일정 및 환경** 등을 감안하여 **탄력적으로 적용**하거나 **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** 가능함

2. 기본방향

- 각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**방역적 조치**를 **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**

- 다만, ① **집단행사 주최기관**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**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**하고 ② **다수의 취약계층**(65세 이상 노인, 5세 미만 영유아, 임신부 등) 대상으로 ③ **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**하는 행사는 연 기 또는 **대상자를 축소**하는 등 **조정하여 시행**할 수 있음

※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고,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음

-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조치 계획 마련 시 **관할 지자체(보건소)와 협조체계를 구축·운영**

- 또한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 인원을 위한 **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**

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

1. 집단행사 주최기관

□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

-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
 -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**핫라인** 구축
 - * 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
 - 집단행사 조직 내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**신고접수 담당자**’를 지정하여 집단행사 진행요원 및 참여자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
- 집단행사장소 내 **비누, 손소독제** 등을 충분히 비치
-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**안내문**을 여러 곳에 배치
 - * 국제 행사 시,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특성(비말감염)을 고려하여, 집단행사 내용상 **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내용** 제외
 - * 재채기, 콧물, 가래,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, 환경 등 고려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(“**의심환자**”)가 발생할 경우 **신속한 대처**를 위한 **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** 시행
 - 의심환자 발생시,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**격리공간 확보** 및 **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** 등 방역물품 구비
 - 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 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
 - *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>

-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
-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,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
 - *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참가 불가
 - (단,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)

○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

- (안내문)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

< 참여자 사전 안내 >

-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, 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
-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

-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

- * 시험 등의 경우 별도 공간 구분, 교통편 분리 등

-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

- *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, 교통편 증대 등

□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

○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,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

-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, **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**
 - * 보건소 도착 전,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

○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

-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,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

○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

붙임 1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(일반국민용)

1.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!

- * 손바닥, 손등, 손가락 사이, 두 손 모아, 엄지 손가락, 손톱 밑 등

-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.

-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.

-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.

2.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!

- 특히, 의료기관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99, N95 등) 착용하세요.

-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
-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.

3.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!

4.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, 폐렴이 발생할 경우

- ① 보건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문의

-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

-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